-

루실 에스페라는 죽었다.

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

내린 결론을 번복하기엔 눈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. 마음 같아선 정말 그리하고 싶었으나, *그게 어찌 가능하리.*

페르디난드는 생각했다. 이 여자는 생의 끝까지 제멋대로고, 남은 자 따위는 결코 제 신념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고.
참으로 이기적이다. **평생토록 납득하지 못하리라…….**

"내 모든 말을 기억해. 분명히, 따라오라고 말했고. 믿으라고. 실망시키지 말라 말했어!

*이까짓 결과가 네가 말하는 **희망**이라면. 내가, 대체, 어떻게…*

뻔해. 이대로 평생 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지. 최악만을 손에 쥔 채로…

루실 에스페라. 너는 정말 최악의 파트너야…."

흩날리는 *잿가루*를 움켜쥐어 봤자 도로 흩어질 뿐이다. 하염없이 자리를 지킨들 달라지는 건 없었다. 결국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다.

모두가 희생한 영웅을 칭송한다. 그러나 단 한 명만큼은, 결코…….

-

“고작 눈앞의 이득을 취하겠다고… 이 수많은 시민들이 사는 안전지대를 저버리겠다, 그 말인가?”

구둣굽 울리는 소리, 액체가 바닥으로 똑 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에 퍼진다. 나직하게 묻는 말은 딱히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. 물론, 상대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냐… 그것부터가 문제겠지만. 테이블에 얼굴을 박은 채 손가락을 겨우 까딱이던 이는 목이 메여 컥컥거리는 소리만 내다 이내 그것마저 끊긴 채 미동조차 없어졌다. 태연하게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잔을 빙글 돌리던 페르디난드는 가볍게 손짓해 식사 상대였던 것을 치우라 지시했다. *다들 생각이 참 짧아.*

시야의 절반은 사람 없는 만찬 테이블, 절반은 시내의 전경으로 가득 찼다. 처음엔 다소 어지러웠으나 이까짓 것 익숙해지는데 큰 공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. *안전지대의 평화를, **희망**을 위해서라면…….*

상념은 거기서 끊긴다. 방문자가 있다던가? 그러나 곧 확인한 방문자의 ‘이름’에 그는 인상을 굳히고 말았다.

“관심을 끌려는 짓이라면 그만두고 돌아가라고 해. 그 따위 장난은 들어주는 것도 시간 낭비니까.”

*“그게, 이것도 안된다면 자신을 ‘**파트너**’라고…….”*

***파트너?** 어림도 없다.* 누구보다 최악의 길만 갔던 그 여자는 이미 제 눈앞에서 재가 된 지 오래인데. 숨을 짧게 들이킨 그는 자리에서 도로 일어나 문 앞으로 향했다. 달칵, 문고리가 돌아간다.

“……페르디난드?”

“너…….”

멀끔한 낯빛, 늘 입고 다니던 군복.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모습과 오버랩되어 보였다. 일순 표정이 흐트러질 뻔 했으나,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그린 채 방문자를 맞이한다.

—**'이게' 진실로 제 파트너일지는 알 수 없으나.**

왜, 이전처럼 의태한 크리처일 수도 있잖아?

"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?"

"일단 들어와.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."

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식사를 하던 자리였음이 분명하나, 상대의 흔적은 흐트러진 식탁 한 구석 외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.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당최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로. 그도 그럴 것이 루실 에스페라의 시간은 약 2년 전 이미 멈추었다가, 다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했다. 그리고 이건 제 아무리 루실이라도 당장 자리에 없는 사람의 안부 물을 일을 뒷전으로 할 법한 사안이었다.

그렇게 식사 자리는 다시 꾸려진다. 섬세하게 세공된 은식기, 금방 만들어진 듯한 음식들. **'루실'의 마지막 기억**으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있기까지 많은 생략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다. 페르디난드는 태연히 말한다. 네가 목숨과 맞바꿔 지킨 안전지대를 제가 **'보호'**하고 있으니. 이제 차차 평화로워질 것이라고.

……보호, 그리고 평화?
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…….

-

“페르디난드. 이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.”

또 하나의 정적을 처리하기 직전, 부러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끝끝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찾아오고야 마는 이가 있다. *탕,* 위협 사격까지 가하며 하던 일을 방해한다. *루실, 이러면 곤란해.*

“이 사회의 평화를 방해할 셈인가?”

“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들을 배제하려는 행위가, 정말 그 평화가 맞나요?”

“이 또한 세상을 지키는 방법이지. 네 유지를 본받아서.”

그건 아니야. 나는 당신에게 ***이런 걸*** *바란 적이…….*

총성이 울린다. *한 번, 그리고 두 번.* 이윽고 자리에 남은 살아있는 자는 한 명뿐이 되었다.
통제되지 않는 요소는 잘라낼 것. 그리하여 이 손 안에서, 완벽한 평화를 빚어내야 한다.

— 안전지대의 관리자란 그런 자리다. ***‘세상을 지키기 위해서.’***
마음의 무언가가 깎여나가는 것 정도는…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.

그런 불필요한 건 진작 내려놓아야지.

-

그렇게 몇 번이고 죽음을 반복할 때까지, 죽음을 넘어 다시금 찾아올 때까지.

자그마치 **100년**이란 세월이 흐른다. **나를 방해하는 너**를 이 손으로 몇 번을 죽였던가.

“……페르디난드?”
“루실, …이게 얼마 만인지.”

너무 오래도록 기다려 왔다. *지겹도록.*